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2일 웨이보 공개)

교사자격증(教師資格證)을 통과(通過)할 수 있을까? (왕호응 씀)

이것은 제자(弟子)가 나에게 물었던 사례(事例)이다. 9월 16일 초등(初等) 교사 자격증 필기시험(筆記試驗)을 치는데, 합격(合格)할 수 있을까?

계묘년(癸卯年) 무오월(戊午月) 갑인일(甲寅日) 갑술시(甲戌時) (순공(旬空): 자축(子丑))에, 풍수환(風水換) 괘(卦)를 얻었다.

癸卯年 戊午月 甲寅日 甲戌時

八卦

風水換(離火宮) 之 風水換(離火宮)

父 辛卯 喜花	玄 父 辛卯 喜花	伏 兄 己巳 亡
世 兄 辛巳 亡	白 兄 辛巳 亡	世 伏 孫 己未 乙花鞍
孫 辛未 乙花鞍	蛇 孫 辛未 乙花鞍	伏 財 己酉 帳鬼害
兄 戊午 將	勾 兄 戊午 將	伏 官 己亥 閏德花劫
應 孫 戊辰 馬月	朱 孫 戊辰 馬月	應 伏 孫 己丑 空 乙天
父 戊寅 地	青 父 戊寅 地	伏 父 己卯 喜花

부모(父母)를 용신(用神)으로 삼는데, 부모가 양현(兩現)하였고 월(月)은 방부(幫扶)하지 않으나, 초효(初爻) 부모 인목(寅木)이 일(日)에 임(臨)하고 청룡(靑龍)에 치(值)하여 왕상(旺相)하며 세효(世爻)를 생(生)하니, 틀림없이 통과할 수 있다.

뒤에 술월(戌月)의 피드백에, 시험(試驗)에 통과했다고 하였다.

卦身: 孫辰

世身: 六爻

空亡: 子丑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2일 웨이보 공개)

教师资格证能否通过？（王虎应写）

这是徒弟问过我的一个案例。9月16日考小学教师资格证笔试，能考过吗？于癸卯年戊午月甲寅日甲戌时（旬空：子丑），得风水涣。

玄武		父母卯木'
白虎		兄弟巳火'世
螣蛇	妻财酉金	子孙未土"
勾陈	官鬼亥水	兄弟午火"
朱雀		子孙辰土'应
青龙		父母寅木"

以父母为用神，父母两现，月不帮扶，但初爻父母寅木临日，值青龙旺相生世爻，一定可以通过。
后戌月反馈，考试通过了。



融(연락처: 010-5318-6999)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융(인스타: sangjun2495) (융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2일 웨이보 공개)

소강절(邵康節) 전기(傳奇)

제2장 아버지를 따라 이주(移住)하여, 중원(中原)을 떠돌며 초심(初心)을 갈고 닦다

소옹(邵雍)이 나이 12세(歲) 되던 해, 북송(北宋) 천희(天禧) 4년(四年)에 연조(燕趙) 대지(大地)에는 연이어 가뭄과 홍수(洪水)가 번갈아 일어나 해마다 살기가 점점(漸漸) 어려워졌다. 과거(過去) 편안(便安)하고 아늑하던 전원(田園) 마을들은 잇달아 자연재해(自然災害)를 만났으니, 논밭은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어린 묘목(苗木)은 말라 비틀어졌으며, 가을 수확(收穫)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백성(百姓)의 생계(生計)가 더욱 비참(悲慘)해졌다. 탁주(涿州) 대소촌(大邵村)이 비록 척박(瘠薄)한 곳은 아니었으나 역시 자연재해의 피해(被害)를 피할 수 없어, 이웃들은 고향(故鄉) 땅을 떠나 피난(避難)을 가거나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다. 예전에 책(冊)을 읽고 시(詩)를 읊으며 편안하게 지내던 시골집에는 차츰 시름과 쓸쓸한 기운(氣運)이 짙어졌다.

아버지 소고(邵古)는 반평생(半平生)을 고향에서 숨어 살며 본래(本來) 조상(祖上) 대대(代代)로 물려받은 집을 지키고, 농사(農事) 짓고 글을 읽으며 집안의 가풍(家風)을 전(傳)해 편안하게 살고자 했다. 하지만 고향 땅에서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또 어린 아들 소옹이 흉년(凶年)에 가로막혀 공부(工夫)를 소홀(疏忽)히 하거나 아예 포기(拋棄)하게 되는 것을 원(願)치 않았다. 소고는 몇 번이나 고심(苦心) 끝에 마침내 결심(決心)을 내리고 온 가족(家族)을 이끌고 남(南)쪽으로 이주하여, 멀리 중주(中州) 땅으로 가서 생계를 도모(圖謀)하고 배움을 구(求)하기로 했다.

중주 하남(河南)은 천하(天下)의 중심(中心)에 위치(位置)하여 예로부터 학문(學問)의 줄기가 번창(繁昌)하고 깊은 역사적(歷史的) 전통(傳統)을 간직하고 있었다. 동주(東周), 양한(兩漢), 위진(魏晉), 수당(隋唐)에 이르기까지 역대(歷代) 왕조(王朝)가 대부분(大部分) 이곳에 도읍(都邑)을 건립(建立)하여 책의 향기(香氣)와 학문적 풍기가 짙었고, 이름난 선비와 뛰어난 대학자(大學者)가 수없이 쏟아졌다. 북방(北方) 변방(邊方) 지대(地帶)의 매서운 추위와 척박함에 비교(比較)하면 이곳은 기후(氣候)와 풍토(風土)가 따듯하고 학문적 분위기(霧圍氣)가 열려 있어, 자제(子弟)들이 글을 읽고 몸을 닦으며 학식(學識)을 정진(精進)시키기에 더욱 알맞았다. 소고는 일생(一生) 동안 학문을 연구(研究)하여 안목(眼目)이 넓었으며, 그 땅의 기후와 풍토가 그곳의 사람을 기른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다. 연조 땅에는 의롭고 기개(氣概) 높은 선비가 많으나 성품(性品)이 다소 거칠고 강한 면(面)이 있고, 중주 땅은 천지의 문운(文運)을 감추고 중용(中庸)의 대도(大道)를 머금고 있어 마침 소옹의 내면(內面)을 갈고 닦아 그 도량(度量)과 격국(格局)을 넓히고 시골의 좁은 틀을 벗겨낼 수 있다고 여겼다. 이에 이 해 깊은 가을, 만물(萬物)이 시들어 갈 때 소씨(邵氏) 집안은 간단(簡單)한 짐을 챙기고 방안 가득한 책들을 실은 채, 대대로 거주(居住)하던 범양(范陽)의 고향 땅을 작별(作別)하고 떠돌며 남쪽으로 이주하는 머나먼 노정(路程)에 올랐다.

어린 소옹이 소수레 위에 서서 자신을 낳고 기른 고향 땅을 뒤돌아보니 마음속에는 온통 섭섭함과 아쉬움이 가득했다. 마을 입구(入口)의 늙은 나무, 자주 앉던 정원(庭院), 낮익은 이웃들은 모두 10여 년 동안 쌓아온 따스한 기억(記憶)이었으나, 이제 모두 멀리 사라져 차츰 저물어가는 먼지와 저물녘의 사이로 흐려졌다. 앞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2일 웨이보 공개)

길은 아득하여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으나, 그의 눈빛에는 결코 어린아이의 두려움이나 불안(不安)해하는 기색(氣色)이 없었고, 도리어 깊은 침착(沈着)함과 의연(毅然)함이 더해졌다. 오랫동안 천지를 관찰(觀察)하고 사계절(四季節)의 흐름을 살핀 내공(內功)은 그로 하여금 세상일의 무상(無常)함과 변화(變化)의 법칙(法則)을 이미 깨닫게 했다. 천지만물(天地萬物)이 모두 흘러가고 변화하는 사이에 있고, 이주와 이별(離別) 역시 인간 세상의 흔한 상태(常態)일 뿐이었다. 또래를 혹은 초월(超越)한 이 통달한 마음씨에 소고는 무척 대견하고 위안(慰安)이 되었으며, 남쪽으로의 이주가 필시 아들의 인생(人生)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轉換點)이 될 것임을 확신(確信)했다.

남쪽으로 가는 길은 1000리에 달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노숙(露宿)을 거듭 하니 고생(苦生)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당시 북송이 비록 오랜 세월 평화(平和)로워 전란(戰亂)을 멀리하였으나 시골길은 험(險)하고 울퉁불퉁하여 평탄(平坦)하지 않았고, 가는 길의 마을은 드물었으며 황량(荒涼)한 시골과 광야(曠野)가 대부분이었다. 낮에는 수레와 말이 덜커덩거리며 먼지가 몸에 가득한 채, 부자(父子) 두 사람은 길가의 산천(山川) 지형(地形)을 관찰하고 그곳의 풍속(風俗)과 인정(人情)을 살폈다. 그렇게 북방의 웅혼(雄渾)하고 장대(壯大)함은 차츰 물러가고 중원의 따스하고 영묘(靈妙)함이 서서히 펼쳐졌다. 소고는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학문을 가르쳤다. 산과 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용을 위해 지리의 연혁(沿革)을 설명(說明)하고, 논밭과 마을을 바라보며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이야기해 주었다. 북방의 기개로부터 중원의 학문적 전통에 이르고 왕도(王道)의 흥망으로부터 백성의 생계에 이르기까지, 소용은 길을 걸으며 귀담아듣고 몸소 깨달아 가며 보고 느낀 바를 전부 마음속에 새겼다. 덕분에 안목과 도량이 넓은 대지를 걷는 사이에 빠르게 넓어졌다.

밤에는 황량한 마을의 여관(旅館)이나 오래된 절, 무너진 암자(庵子)에 묵으며 등불과 책을 벗 삼을 수 없었으나, 소용은 곧 별과 달의 미광(微光)을 빌려 책을 펼치고 글을 읽으며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먼 길을 걸어 몸과 마음이 피곤(疲困)하여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지쳐 잠에 들었으나, 오직 그만은 여전(如前)히 바르게 앉아 글을 읽고 경전(經典)의 뜻을 외우며 대도(大道)를 사색(思索)했다. 소고는 매번(每番)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깊이 감탄(感歎)하며, 이 자식(子息)의 심지(心志)가 굳세고 단단하여 보통(普通) 사람을 훨씬 초월(超越)하니 후일(後日) 반드시 적막(寂寞)함을 견뎌내고 본심(本心)을 지켜 독보적(獨步的)인 학문을 성취(成就)할 것임을 깊이 알고 있었다. 보통의 소년(少年)은 분주(奔走)하게 떠도는 사이에 공부를 소홀(疎忽)히 하거나 뜻을 잃어버리기 쉽지만, 소용은 도리어 고난(苦難)의 행로(行路) 속에서 더욱 침착(沈着)해지고 더욱 학문을 구하고 도를 깨닫는 초심(初心)을 굳건히 했다.

두 달 남짓 떠돌며 길을 걸은 끝에 소씨 일가(一家)는 마침내 형장(衡漳)의 땅에 도착(到着)하여 하남 공성(共城)에 자리를 잡았다. 공성은 중주의 중심부(中心部)에 위치(位置)하여 산수(山水)가 맑고 수려(秀麗)하며 민풍(民風)이 순박(純朴)했고, 조정(朝廷)의 시끄러움을 멀리하고 시정(市井)의 화려(華麗)함이 적으니 몸을 닦고 학문을 다스리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타향(他鄉)에 처음 도착하여 아는 사람이 없고 소씨의 집안 형편(形便)은 가난하여 의지(依支)할 친우(親友)가 없었으므로, 오직 한 칸의 누추(陋醜)한 초가(草家)집을 얻어 집을 꾸몄다. 네 벽만 덩그러니 남은 빈방이라 살림살이가 극히 빈약(貧弱)했다. 매일 거친 차와 밥에 배움을 입고 누추한 방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나, 온 가족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마음을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2일 웨이보 공개)

편안히 가졌기에 가난함으로 인해 원망(怨望)하는 기색(氣色)을 전혀 내지 않고 안연(安然)하였다.

공성에 정착(定着)한 후에도 소고는 여전히 농사(農事) 짓고 글을 읽는 가풍을 이어갔다. 낮에는 농사일과 노동(勞動)으로 작은 밭을 돌보며 살림에 보태고, 밤에는 등을 돌우고 수업(授業)을 펼쳐 소옹에게 글을 읽고 학문을 다스리도록 가르쳤다. 이주와 유랑(流浪)을 겪고 인간 세상의 고초를 다 겪은 소옹은 더욱 배움의 기회(機會)를 얻기가 쉽지 않음을 깨달아 배움에 더욱 각고(刻苦)하고 근면(勤勉)했다. 당시(當時)의 그는 이미 어린날의 철없음과 장난기를 완전히 벗어났다. 매일 하늘이 채 밝기도 전에 일어나 글을 읽고 밤중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으며, 밤낮으로 경사자집(經史子集)을 깊이 연구(研究)하고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전적(典籍)을 넓게 읽어 한 가지도 소홀(疏忽)함이 없었다. 무릇 마을에서 찾아낼 수 있는 책은 그가 전부(全部) 빌려와 통독(通讀)하고 한번 눈에 스치면 바로 외웠으며 깊이 이해(理解)하여 관통(貫通)하니, 더는 부친(父親)이 전수(傳授)한 기초적(基礎的) 학식(學識)에 국한(局限)되지 않고 스스로 의리(義理)를 탐구(探究)하고 학문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始作)하였다.

가난한 살림은 결코 그의 지기(志氣)를 꺾지 못했고 도리어 그의 내면(內面)을 갈고 닦았다. 여름에 초가집은 무덥고 가만히 있기 어려우며 모기가 에워쌌으나 그는 여전히 바르게 앉아 글을 읽으며 외물(外物)로 인(因)해 흔들리지 않았다. 겨울에 중주는 습(濕)하고 추위 추위를 녹일 숯불조차 없었으므로 양손이 동상(凍傷)으로 붉게 붓고 굳어졌으나 여전히 붓을 잡고 주석(註釋)을 달며 책을 베껴 썼다. 이웃 사람들은 소년이 이토록 각고함을 보고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모두 소씨 집안의 자제가 심지가 견고(堅固)하고 부지런히 배우기를 쉬지 않으니 후일 반드시 큰 인물(人物)이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어떤 이는 이해(理解)하지 못하여 "태평(太平)한 해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먹고살 길과 가업(家業)을 세우는 것을 구하고 편안함을 쫓거늘, 오직 저 아이만은 가난을 감수(甘受)하고 종일(終日)토록 고독(孤讀)하게 글을 읽으니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라고 했다. 소옹은 세간(世間)의 소문(所聞)을 듣고도 한 번도 변명(辨明)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학문에 전념(專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스스로가 구하는 바가 결코 세상의 부귀영화(富貴榮華)가 아니라 천지의 대도요 세간(世間)의 진리(眞理)임을 명백(明白)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성에 정착(定着)한 수년(數年)의 시간 속에 소옹은 철저(徹底)히 시골 아이의 풋풋함을 벗어던지고 학식과 내면이 모두 획기적(劃期的)인 변화를 완성(完成)했다. 이전(以前)에 범양에서 그가 배운 바는 대부분 기초적 경의(經義)와 얇은 이치라 계몽(啓蒙)과 인지(認知)에 중점(重點)이 있었으나, 이주(移住)한 이후에는 대자연(大自然)에서의 단련(鍛鍊)과 가난의 연마를 겪으며 그의 학문은 더욱 가득 차고 묵직해졌으며 사유(思維)는 더욱 깊고 치밀(縝密)해졌다. 그는 더는 책 속 문자(文字)의 기계적(機械的)인 암기에 국한되지 않고 책에서 배운 바를 천지 만상(萬象), 인간 세상의 다양한 모습과 서로 융통(融通)하기 시작했다. 사계절의 흐름을 관찰하여 시간의 법칙을 깨닫고 사람의 따스하고 차가운 정(情)을 살펴 세상일의 변천(變遷)을 알았으며 지나간 날의 기록을 열람(閱覽)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를 명백히 했다.

이때의 소옹은 이미 어렴풋이 대학자(大學者)의 기상(氣象)을 지녔다. 나이가 젊음에도 침착하고 단정(端正)하여 화려(華麗)함을 선망(羨望)하지 않고 명리(名利)를 쫓지 않으며, 마음이 욕심(慾心) 없이 맑고 고요하여 한 점의 잡념(雜念)도 없었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2일 웨이보 공개)

다. 글을 읽음은 과거(科擧)의 공명(功名)을 위함이 아니요 부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만물(萬物)의 근원(根源)을 탐색(探索)하고 천지의 지극(至極)한 이치(理致)를 통달(通達)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순수(純粹)한 학문적 열정(熱情)은 오직 이익만 쫓는 세상이 성행(盛行)하던 북송의 시절에 극히 얻기 어려운 것이었다. 무수(無數)한 독서인(讀書人)들이 머리가 희어질 때까지 경전을 연구함은 오직 과거에 급제(及第)하여 관직(官職)에 나아가기 위함이었으나, 오직 소용만은 흐름을 거슬러 가며 가난을 감수(하고 본심을 굳게 지켜 도를 깨닫는 것을 평생의 추구(追求)로 삼았다.

1000리를 이주하고 반평생을 갈고닦으니 고향 땅의 바람과 눈은 그 기개(氣概)를 기르고 중주의 풍토는 그 내면을 함양(涵養)했다. 이 남북(南北)을 가로지른 머나먼 여정(旅程)은 소용으로 하여금 재앙(災殃)의 고통(痛苦)을 피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지방(地方)의 좁은 틀을 벗어나 넓고 장대(壯大)한 대지를 보고 인간의 고초를 다 겪게 하여 흔들리지 않고 순수한 본심을 단련해내었다. 진실(眞實)로 이 가난하게 학문을 다스리고 마음을 모아 쌓아 올린 세월이, 그가 후일에 스승을 모셔 도를 깨닫고 독창적(獨創的)으로 역학(易學) 체계(體系)를 세워 성리학(性理學)의 종장(宗匠)으로서 대학자의 위업(偉業)을 성취(成就)하는 데 가장 견실(堅實)한 뿌리를 다져 주었다. 소년(少年) 소용은 중주의 옥토(沃土) 위에서 초심을 지키고 학문을 부지런히 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으니, 한 번의 기이(奇異)한 인연(因緣)이 도래(到來)하기를 고요히 기다리는 중이다.

第二章 随父迁徙，辗转中州砺初心

邵雍十二岁那年，北宋天禧四年，燕赵大地连年旱涝交替，年岁渐艰。昔日安稳的田园村落，接连遭遇天灾，田地龟裂，禾苗枯焦，秋收颗粒微薄，百姓生计愈发窘迫。涿州大邵村虽不算贫瘠，却也难逃天灾波及，乡邻们或流离逃难，或艰难度日，往日诗书相伴的清静乡居，渐渐被愁苦萧瑟的气息笼罩。邵古半生隐居乡里，本欲守着祖宅耕读传家，安稳度日，可眼见故土生计维艰，又不愿让幼子邵雍困于荒年，荒废学业，几经思虑，终究下定决心，举家南迁，远赴中州之地谋生求学。

中州河南，地处天下之中，自古文脉昌盛，底蕴深厚。东周两汉、魏晋隋唐，历代王朝多在此建都，书香风气浓郁，名士大儒辈出，相较于北方边地的苦寒贫瘠，这里水土温润、文风开放，更适合子弟读书修身、精进学识。邵古一生治学，眼界开阔，深知一方水土养一方人，燕赵多慷慨悲歌之士，却偏于刚劲，而中州藏天地文运，蕴中庸大道，恰好可磨砺邵雍的心性学识，助其开阔格局，褪去乡野局限。于是，这一年深秋，万物凋零之时，邵家收拾简单行囊，载着满屋书卷，辞别世代居住的范阳故土，踏上了辗转南迁的路途。

年少的邵雍立于牛车之上，回望生养自己的故乡故土，心中满是不舍与怅然。村口的老树、常坐的庭院、熟悉的乡邻，皆是十余年来的温暖记忆，如今尽数远去，渐渐消散在风尘暮色之中。前路漫漫，未知几何，可他眼底并无孩童的惶恐不安，反倒多了几分沉静与笃定。多年观天地、察四时的修为，让他早已懂得世事无常、迁变有度，天地万物皆在流转变化的中，迁徙离别，亦是人世常态。这份远超同龄人的通透心性，让邵古愈发欣慰，也愈发笃定，南迁之举，必将是儿子人生蜕变的重要契机。

南迁路途千里，跋山涉水，风餐露宿，极为艰辛。彼时北宋虽承平多年，远离战乱，可乡间官道崎岖不平，沿途村落稀疏，荒郊旷野居多。白日车马颠簸，尘土满身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2일 웨이보 공개)

身，父子二人沿途观山河地貌、察风土人情，北地的雄浑壮阔渐渐褪去，中原的温润灵秀徐徐铺展。邵古一路行走，一路讲学，指着山川河流为邵雍讲解地理沿革，望着田野村落讲述历代兴衰，从燕赵风骨讲到中州文脉，从王道兴衰讲到百姓生计。邵雍一路聆听，一路体悟，将沿途所见所感尽数记于心中，眼界与格局在山河行走间飞速开阔。

夜里宿于荒村野店、古寺破庵，无灯火书香相伴，邵雍便借着星月微光，展卷读书，从不懈怠。长途跋涉身心疲惫，旁人早已困顿休憩，唯独他依旧端坐读书，默诵经义，思索大道。邵古每每见此情景，心中感慨，深知此子心志坚韧，远超常人，日后必能耐得住寂寞、守得住本心，成就一番绝学。寻常少年极易在奔波流离中荒废学业、消磨心志，可邵雍反倒在苦难行路中愈发沉静，愈发坚定求学悟道的初心。历经两月有余的辗转跋涉，邵家一家人终于抵达衡漳之地，落脚河南共城。共城地处中州腹地，山水清幽，民风淳朴，远离朝堂喧嚣，少有市井浮华，是一处修身治学的绝佳秘境。初到异乡，人生地不熟，邵家家境清贫，无亲友依附，只能租赁一间简陋茅屋安家，四壁萧然，家徒四壁，日子过得极为清贫。每日粗茶淡饭，布衣陋室，清贫度日，可一家人诗书不离手，心性安然，从未因贫寒生出怨怼。

定居共城之后，邵古依旧延续耕读家风，白日耕作劳作，打理薄田，补贴家用，夜晚挑灯授课，教导邵雍读书治学。经历迁徙流离、饱尝人间清苦的邵雍，愈发懂得读书机会来之不易，治学愈发刻苦勤勉。彼时的他，早已挣脱了孩童的懵懂贪玩，每日天未亮便起身读书，夜半方休，日夜深耕经史子集，博览百家典籍，无一疏漏。凡乡里能寻到的书籍，他尽数借来通读，过目成诵、融会贯通，不再局限于父亲传授的基础学识，开始自主探究义理、深究学问。

贫寒的生活未曾消磨他的志气，反倒磨砺了他的心性。夏日茅屋闷热难耐，蚊虫环绕，他依旧端坐读书，不为外物所扰；冬日中州湿寒，无炭火取暖，双手冻得红肿僵硬，依旧握笔批注、抄录典籍。邻里乡党见少年如此刻苦，无不赞叹钦佩，皆言邵家子弟，心志坚毅，勤学不辍，他日必成大器。亦有人不解，乱世承平之年，世人皆求谋生立业、追逐安稳，唯有他甘于清贫、终日苦读，不知所求为何。邵雍听闻流言，从不辩解，依旧潜心治学，他心中清楚，自己所求从非世俗荣华，而是天地大道、世间真理。

在共城定居的数年时光里，邵雍彻底褪去了乡野稚子的青涩，学识与心性皆完成了质的蜕变。此前在范阳，他所学多为基础经义、粗浅事理，重在启蒙认知；南迁之后，历经山河历练、清贫磨砺，他的学问愈发扎实厚重，思维愈发深邃缜密。他不再局限于书本文字的死记硬背，开始将书本所学与天地万象、人世百态相融互通，观四季流转悟时序规律，察人情冷暖懂世事变迁，览史书兴衰明治乱之道。

此时的邵雍，已然初具大儒气象。年纪轻轻却沉稳端方，不慕浮华、不逐名利，淡泊宁静、心无杂念。读书不为科举功名，不为博取富贵，只为探寻万物本源、洞悉天地至理。这般纯粹的治学之心，在功利盛行的北宋世间极为难得。无数读书人皓首穷经，只为金榜题名、跻身仕途，唯有邵雍逆流而行，甘于清贫、坚守本心，以悟道为毕生追求。

千里迁徙，半生磨砺，故土的风雪滋养其风骨，中州的水土涵养其心性。这场跨越南北的辗转旅程，不仅让邵雍避开了荒年疾苦，更让他跳出一方天地的局限，阅尽山河壮阔，饱尝人间清苦，锤炼出坚韧不拔、淡泊纯粹的本心。正是这段清贫治学、潜心积淀的岁月，为他日后拜师悟道、独创易学体系、成就理学宗师伟业，筑牢了最坚实的根基。少年邵雍，于中州沃土之上，守初心、勤治学，静待时机，静待一场旷世机缘的到来。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2일 웨이보 공개)

身,父子二人沿途观山河地貌、察风土人情,北地的雄浑壮阔渐渐褪去,中原的温润灵秀徐徐铺展。邵古一路行走,一路讲学,指着山川河流为邵雍讲解地理沿革,望着田野村落讲述历代兴衰,从燕赵风骨讲到中州文脉,从王道兴衰讲到百姓生计。邵雍一路聆听,一路体悟,将沿途所见所感尽数记于心中,眼界与格局在山河行走间飞速开阔。

夜里宿于荒村野店、古寺破庵,无灯火书香相伴,邵雍便借着星月微光,展卷读书,从不懈怠。长途跋涉身心疲惫,旁人早已困顿休憩,唯独他依旧端坐读书,默诵经义,思索大道。邵古每每见此情景,心中感慨,深知此子心志坚韧,远超常人,日后必能耐得住寂寞、守得住本心,成就一番绝学。寻常少年极易在奔波流离中荒废学业、消磨心志,可邵雍反倒在苦难行路中愈发沉静,愈发坚定求学悟道的初心。历经两月有余的辗转跋涉,邵家一家人终于抵达衡漳之地,落脚河南共城。共城地处中州腹地,山水清幽,民风淳朴,远离朝堂喧嚣,少有市井浮华,是一处修身治学的绝佳秘境。初到异乡,人生地不熟,邵家家境清贫,无亲友依附,只能租赁一间简陋茅屋安家,四壁萧然,家徒四壁,日子过得极为清贫。每日粗茶淡饭,布衣陋室,清贫度日,可一家人诗书不离手,心性安然,从未因贫寒生出怨怼。

定居共城之后,邵古依旧延续耕读家风,白日耕作劳作,打理薄田,补贴家用,夜晚挑灯授课,教导邵雍读书治学。经历迁徙流离、饱尝人间清苦的邵雍,愈发懂得读书机会来之不易,治学愈发刻苦勤勉。彼时的他,早已挣脱了孩童的懵懂贪玩,每日天未亮便起身读书,夜半方休,日夜深耕经史子集,博览百家典籍,无一疏漏。凡乡里能寻到的书籍,他尽数借来通读,过目成诵、融会贯通,不再局限于父亲传授的基础学识,开始自主探究义理、深究学问。

贫寒的生活未曾消磨他的志气,反倒磨砺了他的心性。夏日茅屋闷热难耐,蚊虫环绕,他依旧端坐读书,不为外物所扰;冬日中州湿寒,无炭火取暖,双手冻得红肿僵硬,依旧握笔批注、抄录典籍。邻里乡党见少年如此刻苦,无不赞叹钦佩,皆言邵家子弟,心志坚毅,勤学不辍,他日必成大器。亦有人不解,乱世承平之年,世人皆求谋生立业、追逐安稳,唯有他甘于清贫、终日苦读,不知所求为何。邵雍听闻流言,从不辩解,依旧潜心治学,他心中清楚,自己所求从非世俗荣华,而是天地大道、世间真理。

在共城定居的数年时光里,邵雍彻底褪去了乡野稚子的青涩,学识与心性皆完成了质的蜕变。此前在范阳,他所学多为基础经义、粗浅事理,重在启蒙认知;南迁之后,历经山河历练、清贫磨砺,他的学问愈发扎实厚重,思维愈发深邃缜密。他不再局限于书本文字的死记硬背,开始将书本所学与天地万象、人世百态相融互通,观四季流转悟时序规律,察人情冷暖懂世事变迁,览史书兴衰明治乱之道。

此时的邵雍,已然初具大儒气象。年纪轻轻却沉稳端方,不慕浮华、不逐名利,淡泊宁静、心无杂念。读书不为科举功名,不为博取富贵,只为探寻万物本源、洞悉天地至理。这般纯粹的治学之心,在功利盛行的北宋世间极为难得。无数读书人皓首穷经,只为金榜题名、跻身仕途,唯有邵雍逆流而行,甘于清贫、坚守本心,以悟道为毕生追求。

千里迁徙,半生磨砺,故土的风雪滋养其风骨,中州的水土涵养其心性。这场跨越南北的辗转旅程,不仅让邵雍避开了荒年疾苦,更让他跳出一方天地的局限,阅尽山河壮阔,饱尝人间清苦,锤炼出坚韧不拔、淡泊纯粹的本心。正是这段清贫治学、潜心积淀的岁月,为他日后拜师悟道、独创易学体系、成就理学宗师伟业,筑牢了最坚实的根基。少年邵雍,于中州沃土之上,守初心、勤治学,静待时机,静待一场旷世机缘的到来。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2일 웨이보 공개)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웅(인스타: sangjun2495) (웅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태원(太原) 인물(人物) 전기(傳奇)

적인걸전(狄仁傑傳)

적인걸은 자(字)가 회영(懷英)이며 병주(并州) 태원(太原) 사람으로, 당(唐)나라 시대(時代)의 사직(社稷) 명신(名臣)이자 일대(一代)의 현상(賢相)이다. 적씨(狄氏) 가문(家門)은 대대(代代)로 태원에 살았으며, 집안의 내력(來歷)이 돈후(敦厚)하고 시서(詩書)를 숭상(崇尚)하는 문한(文翰)의 가풍(家風)을 이어왔다. 적인걸은 어릴 때부터 기이(奇異)한 자질(資質)을 타고나 천성(天性)이 총명(聰明)했고, 침착(沈着)하고 정성(精誠)스러워 보통(普通)의 아이들과는 판이(判異)하게 달랐다. 어려서부터 경서(經書)와 역사(歷史)를 널리 섭렵(涉獵)하고 법률(法律)을 깊이 연구(研究)했으며 세상(世間)을 다스리는 도리(道理)를 깊이 탐구(探究)하니, 마음속에 늘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百姓)을 불쌍히 여기고 나라를 붙잡아 세우겠다는 뜻을 품었다. 젊은 나이에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니, 처음에는 변주(汴州)의 판좌(判佐)가 되었고 후일(後日) 병주 법조(法曹)와 대리승(大理丞) 등의 관직(官職)을 역임(歷任)했다. 벼슬살이의 초년(初年)부터 늘 본심(本心)을 굳게 지켰고, 청렴(淸廉)하고 정직(正直)하게 자신(自身)을 다스렸으며 권세가(權勢家)에게 아첨(阿諛)하지 않고 사사(私事)로운 정(情)에 이끌리지 않았다.

그가 대리시(大理寺)에 재직(在職)할 당시(當時), 수년(數年) 동안 판결(判決)이 나지 않고 밀린 죄수(罪囚)들의 명부(名簿)가 수천(數千) 명(名)에 달했고, 억울(抑鬱)한 사건(事件)이 산(山)처럼 쌓여 조정(朝廷)과 민간(民間)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적인걸은 밤낮으로 서류(書類)를 검토(檢討)하며 티끌만 한 의혹(疑惑)도 놓치지 않는 안목(眼目)을 발휘(發揮)했고, 법리(法理)를 명백(明白)히 가려내면서도 사람의 정을 헤아려 동정(同情)했다. 그리하여 불과(不過) 1년(年) 만에 묵은 사건 1만 700여 건을 모조리 판결했으나 억울함을 호소(呼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천하(天下)의 백성들이 그의 공덕(功德)을 칭송(稱頌)했고, 조정 안팎이 모두 그가 사건을 다스림에 신명(神明) 같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하다고 찬탄(讚歎)해 마지않았다.

무주(武周)의 혁명(革命)으로 당나라 왕실(王室)의 주인(主人)이 바뀌자 조정의 국면(局面)은 기괴(奇怪)하게 흘러갔고, 간사(奸邪)한 무리가 권력(權力)을 휘두르며 잔인(殘忍)한 관리(官吏)들이 판을 치니 백관(百官)들은 대부분(大部分) 권세에 아부(阿附)하며 제 한 몸 보전(保全)하기에 급급(急急)했다. 적인걸은 재상(宰相)의 자리에 올라 어지러운 조정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의로움을 굽히지 않았다. 오직 충성(忠誠)스럽고 곧은 마음으로 매번(每番) 임금의 안색(顏色)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언(直言)을 올려 정치(政治)의 잘잘못을 바로잡았다. 당시(當時) 무측천(武則天)이 무씨(武氏) 가문(家門)의 자제(子弟)를 후계자(後繼者)로 세우려 하자 조정의 그 누구도 감(敢)히 반대(反對)하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직 적인걸만이 거듭 상소(上疏)를 올려 고금(古今)의 치란(治亂)에 관한 이치(理致)를 인용(引用)하고, 종묘(宗廟) 사직(社稷)이 이어지는 도리(道理)를 분명(分明)히 밝히며 간절(懇切)하게 권고(勸告)하니 마침내 이씨(李氏) 왕조의 국맥(國脈)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의 말은 한결같이 애뜻하고 충의(忠義)가 명백(明白)히 드러났기에 마침내 황제(皇帝)의 마음을 감복(感服)시켰고, 끝내 당(唐)나라 왕실(王室)의 태자(太子)를 다시 세워 대당(大唐)의 기업(基業)을 보전(保全)하게 했다. 이는 훗날 중종(中宗)이 다시 보위(寶位)에 오르고 당나라의 전성기(全盛期)가 이어지는 견고(堅固)한 뿌리가 되었다.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12일 웨이보 공개)

적인걸은 평생(平生) 동안 관직(官職)에 있으면서 오직 백성만을 염려(念慮)했고 지방(地方) 고을의 질고(疾苦)를 세심히 살폈다. 고을에 가뭄이나 홍수(洪水) 등(等)의 재해(災害)가 들 때마다 반드시 상소를 올려 부역(賦役)을 줄이고 세금(稅金)을 면제(免除)해 줄 것을 청(請)했으며, 떠도는 백성들을 구제(救濟)하여 민생(民生)을 안정(安定)시키고 가꾸었다. 특히 그는 인재(人材)를 알아보고 현량(賢良)한 사람을 천거(薦舉)함에 있어 지극(至極)히 탁월(卓越)했다. 가문(家門)의 지체(遲滯)를 따지지 않고 사사로운 친분(親分)이나 옛 정에 구애(拘礙)되지 않았으며 오직 재능(才能)만을 보고 사람을 뽑았다. 그리하여 장간지(張柬之), 요숭(姚崇), 환언범(桓彥範) 등 수십(數十) 명의 현신(賢臣)을 차례(次例)로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 이들은 훗날 모두 조정의 중추(中樞)가 되어 당나라 왕실을 붙잡아 부축하고 조정을 안정시켰으며, 전 성기의 찬란(燦爛)한 기상(氣象)을 오랫동안 이어가게 했다.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에서는 모두 그의 충성(忠誠)을 극찬(極讚)하며 " 당나라 사직을 보 전(保全)했고 세상의 백성을 편안(便安)하게 했다"라고 기록(記錄)했다. 적인걸은 병주에서 태어나 진토(晉土)에서 자랐으니, 그의 고결(高潔)한 기개(氣概)는 진(晉)나라 사람 특유(特有)의 돈후(敦厚)함과 지사(志士)의 충절(忠節)을 한 몸에 겸비(兼備)한 것이었다. 홀로 한 몸의 힘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고 사직을 붙잡아 백성을 구제(救濟)했으니, 가히 당나라 제일(第一)의 명재상이라 일컬을 만하다. 천 년의 세월(歲月)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그의 훌륭한 풍모(風貌)는 의연(毅然)히 살아 숨쉬고 있다.

狄仁杰传

狄仁杰，字怀英，并州太原人，唐代社稷名臣、一代贤相也。狄氏世居太原，家世敦厚，诗书传家。仁杰幼秉异质，天资聪敏，沉静笃厚，异于常童。自幼博览经史，精研律法，深究治世之道，常怀悲悯苍生、匡扶社稷之志。年少应试入仕，初为汴州判佐，后历任并州法曹、大理丞等职。为官之初，便恪守本心，清正自持，不附权贵，不徇私情。其任职大理寺之时，积年滞狱数以千计，冤案堆积，朝野棘手。仁杰昼夜阅案，明察秋毫，辨析法理、体恤人情，周岁之内，断滞狱一万七百余件，无一人诉冤，天下称颂，朝野皆赞其断案神明、公正无私。

武周迭代，唐室易主，朝局诡譎，奸佞弄权，酷吏横行，百官多趋炎附势、明哲保身。仁杰身居宰辅，身处乱世朝堂，却守正不屈，秉忠直之心，屡犯颜直谏，匡正朝政得失。时武则天欲立武氏子弟为储，朝堂无人敢言异议，唯独仁杰屡次上疏，引古今治乱之理，陈明社稷传承之道，恳切劝谏，力保李氏国祚。其言辞恳切，忠义昭然，终感悟帝心，复立唐室储君，保全大唐基业，为中宗复位、盛唐延续埋下根基。

狄仁杰为官一生，心系黎庶，体察州县疾苦，每逢地方灾荒，必上疏请减徭役、免征赋税，安抚流民，休养民生。其尤善识才举贤，不计门第、不私亲故，唯才是举，先后举荐张柬之、姚崇、桓彦范等数十位贤臣。诸人后来皆身居宰辅，匡扶唐室，安定朝堂，延续盛唐气象。《旧唐书》《新唐书》皆盛赞其忠，称其“存唐社稷，安海内生民”。仁杰生于并州，长于晋土，一身风骨兼具晋人之敦厚、志士之忠贞，以一身之力匡乱世、扶社稷、济万民，堪称唐代第一良相，千载之下，风骨犹存。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12일 웨이보 공개)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융(인스타: sangjun2495) (융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12일 웨이보 공개)

《추명서(推命書)》17

일본어판(日本語版) 《추명서(推命書)》는 앵전호문(櫻田虎門, 사쿠라다 코몬)의 저작(著作)이다. 이 사람은 센다이번(仙台藩)의 유학자(儒學者)로 호(號)는 고부자(鼓缶子)이며, 역학(易學)과 오행학(五行學)을 겸하여 연구했다. 앵전호문의 《추명서》는 일본 문정(文政) 연간(年間, 약 1818년)에 간행(刊行)된 최초로 체계적(體系的)으로 중국(中國)의 사주추명(四柱推命)을 번역하여 소개한 전문서이다. 서승(徐升)의 《연해자평(淵海子平)》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일본식 선장본(線裝本) 상·중·하 삼권본(三卷本) 형태로 채택(採擇)하였으니, 일본 사주추명의 초석을 다진 문헌(文獻)이다. 동시에 저자(著者)가 명리(命理)를 전문적으로 정통한 것이 아니었기에, 번역의 정밀도와 체계의 부합 면에서 역사적(歷史的) 한계가 존재한다.

학술맥락: 강호(江戶) 중기(中期)에 중국의 사주추명이 일본으로 전해졌고, 앵전호문은 자신(自身)의 유학과 역학 및 오행학적 축적을 결합(結合)하여 최초로 체계적인 번역 소개를 완성(完成)하였다. 아울러 최초로 "단역(斷易)"을 "오행역(五行易)"이라 명명(命名)함으로써, 후속(後續) 일본 추명학 발전(發展)의 전문 용어(用語) 기초를 확립하였다.

역사의의: 일본 추명학의 시조(始祖) 작품으로 사주(四柱: 년, 월, 일, 시), 간지(干支), 오행 등 핵심틀을 명확(明確)히 하였으며, 명리 술수(術數)가 민간으로부터 학술적 시야(視野)로 들어오도록 추동(推動)하였다. 명치(明治) 이후 송본의량(松本義亮) 등의 학자들이 이 기초 위에서 "사주추명"이라는 명칭을 확립하였다. 연재(連載) 중 열 일곱 번째.

日文版《推命書》是櫻田虎門(さくらだこもん)的著作。此人为仙台藩儒学者，号鼓缶子，兼治易学与五行学。櫻田虎門的《推命書》是日本文政年間(約1818

年)刊行的首部系統譯介中國四柱推命的專著，以徐升《淵海子平》為底本，採用和刻線裝上中下三卷本形制，是日本四柱推命的奠基文獻，同時因作者非專精命理，存在翻譯精度與體系适配的歷史局限。

學術脈絡：江戶中期中國四柱推命傳入日本，櫻田虎門結合自身儒易與五行學積累，完成首部系統譯介，首次將“斷易”命名為“五行易”，為後續日本推命學發展奠定術語基礎。

歷史意義：是日本推命學的开山之作，明确了四柱(年、月、日、时)、干支、五行等核心框架，推动命理术数从民间传入学术视野，明治后松本义亮等学者在此基础上确立“四柱推命”名称。連載之十七。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감상(2026년6월12일 웨이보 공개)

자료 없음



그림 보고
성어(成語) 맞히기

당신의 성어에 대한
이해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떤 성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사고력을 넓히고
훈련하세요!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